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2,1~5

화답송 시편 98(97), 1.2~3ㄱ, 3ㄴ~4.5~6 (◎ 2 참조 또는 3ㄴ)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1.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2.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4.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서 로마서 10,9~18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마태오 28,16~20

영성체송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린 끝까지 퍼져 나갔다.(로마 10,18)

작품 : 김태인 비오 (해운대성당·부산가톨릭미술인회)

위령의 날 미사 11.2(토) 11:00

양산 천주교 공원묘지 손삼석 주교 (하늘공원)	경주 공원묘원 삼덕 공원묘원	김영규 신부 이정환 신부
용호동 천주교 묘지 권지호 신부	석계(오룡산) 공원묘원	김대성 신부

•양산(하늘공원) 방면 교통편

1. 출발시각 및 장소 : 09:00 온천장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2. 왕복 교통비 : 1인 12,000원 (선착순)
3. 신청 및 문의 : 247-5858(씨피여행사)
(국민 116-25-0007-226 씨피여행사)

※ 삼덕, 석계(오룡산)는
교통편 지원 없습니다.



전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전합니다

언젠가 본당의 구역모임에서 각자 신자가 된 동기에 대해서 환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당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자각과 선택에 의한 결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지식, 영성적 활력, 실천적 열매 등의 기준에 비추어 자신은 많이 부족하기에 다른 이들에게 전교할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는 이 시대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감당하기에 너무나 좁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점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깊은 어둠의 십자가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키워나간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가서 자신들에게 전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길은 자신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그루의 나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려 함께 숲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은 대단히 힘겹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 본인이 그 진리의 빛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크게 확대되고 세상은 더 밝

아집니다. 사실 우리는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단순한 정보나 단편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실존적인 믿음의 증언과 고백의 표현인 전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교활동에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바라며, 다양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활발히 나누는 과정이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전할 때, 전교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생생한 사랑의 행동임을 절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로운 명령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불렀습니다.



노영찬
세례자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의료원장

우전한날

빛깔 좋은 음식에 현혹되고
넘쳐나는 물질을 손에 잡으려
과소비 하는 것
마음이 허전한 탓이 아닐런지요
항상 새롭게 채워주시는 신비를 잊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낙엽같이 보입니다

글. 정재분 아가다 동시인(대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0.21(월)~22(화)
노영찬 신부(부산가톨릭의료원장)
10.23(수)~26(토)
김병희 신부(수영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김현지 리나

10.23(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수영성당 베드로대학 개교·입학식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

10.24(목) 퀴즈콘서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 정철용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 스페셜 : 10.26(토) 12:00~13:00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2001년, 대학신입생 때의 일입니다. 학내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거리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 청소용품까지 자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제게 어머니의 모습을 한 노동자들은 함께 부를 노래를 가르쳐달라 청했습니다. 다음날, 악보를 가지고 찾아간 저는 휴게실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임시로 막아 놓은 곳. 냉난방은커녕 제대로 된 벽과 바닥도 아닌 그곳에서 그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거나 잠시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와 함께 학교에 이의를 제기했고, 수많은 방문과 항의에도 반응이 없던 학교의 태도에 급기야 총장실 점거농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용역회사 대표가 참석한 협상에서 처우개선을 약속받고

총학생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얼마 후, 학생회관 2층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벽과 천장, 에어컨이 있는 그곳에서 노동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맘 편히 옷을 갈아입고, 쉴 수 있는 공간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급여나 근무조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으니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어렸던 저는 마냥 기쁘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8월, 한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에어컨은커녕 창문도 없는 한 평 남짓한 계단 밑 공간에서 휴식 중 사망하였습니다. 대학들을 확인해보니 지하, 계단 밑, 컨테이너 등이 휴식공간으로 배정되었고, 심지어 사용 중인 화장실 한쪽을 막아 휴게실로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은 물론이고 창문이나 환

풍기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나도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 발전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길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노동자들이 없다면 당장 내일부터 거리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묵묵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차별의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대신 해주는 노동자를 열린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그들이 내는 목소리에 한 번쯤 귀 기울여 주세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도아 프란치스카
장림성당 / 노동사목 행정실장
free6403@daum.net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생명환경 십계명 3.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라(에너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감탄하셨습니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뜻은 그 감탄의 숨결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 좋게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 1,28 참조)

교황님은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통해 공동의 집인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금 새기기를 요청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인간 스스로의 지해를 과신하여 수많은 자원을 바닥내며, 하늘과 땅을 오염시키고, 많은 생명체를 멸종시키기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이들과

생명들의 자리와 기회를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에너지 소비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에 따른 것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에너지(핵발전)의 소비를 경계해

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들의 손과 실천으로 생명이 더해져서 생명의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소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소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즐거운 불편 실천 :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 에너지 안식일을 정해서 실천해 봅시다.
- 성당에 갈 때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걸기 봉헌을 해 봅시다.
-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단식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하고, 찾아봅시다.

← **미카엘라**
2019년 10월 19일

미카엘라
안나야 공부 잘 돼 가?
피곤한데 커피 한잔할까?
미안 ㅠㅠ 나 오늘 성당 가는 날이잖아...

미카엘라
또 성당이야? 년 맨날 성당에서 사는 거 같애~
다음주부터 시험인데 어찌려고 ㅠㅠ
처음엔 나도 시간 아깝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게 은근 중독이야.
우리 아기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잊게 됨♥

미카엘라
그치만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알바를 하면 자기한테 이익인데,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니야?
물론 내가 희생해야 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봉사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너도 같이 안 할래?^^

가족과 관련된다면 무슨 일이건 따지거나 조건없이 해내는 것이 엄마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설 새 없이 요구되는 곳은 일을 당신 몸은 돌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모성(母性)-삶을 창조해 내는 사랑, 곧 하느님의 마음으로 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잃어가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영미 씨(가명)에게는 아빠가 다른 두 딸이 있습니다. 두 아빠 모두 가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부채만을 남겨주어 영미 씨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특히 큰 딸 미나(가명)는 갈숨을 섭취하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비도 영미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고, 살림살이는 기울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영미 씨는 1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딸의 완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미 씨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장에 침투한 악성 류마티스 균에 의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만 무리해도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참아보았지만, 낮은 언덕도 오를 수 없는 쇠약한 몸이 되어버렸고, 결국 일하다가 실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서 1년간의 휴직

을 허락해주어 영미 씨는 자신의 건강 회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가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미 씨는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임시 방편인 진통제 주사와 약물치료뿐인데, 한 달에 60여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픈 배를 움켜쥐며 참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느덧 복직까지 남은 시간은 단 2개월뿐입니다. 의사는 이 상태로 복직할 경우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두 딸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영미 씨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릴 때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영미 씨는 오늘도 “주님, 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미 씨의 기도가 이루어져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손길을 내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교리교사의 날을 축하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만을 위해 애쓰는 각 본당 교사들에게 축하 많이 해 주세요. ‘가르친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칭 '나주 성모경당' 방문 금지 협조 요청

최근 광주대교구는 한국 각 교구 소속 사제들과 신자들에게 자칭 '나주 성모경당'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공문 요약〉

전임 최창무 대주교의 교령과 김희중 대주교가 발표한 지침을 통해 이

곳 즉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교회법 제1336조, 1364조 참조)”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나주 현상’과 관련된 거짓된 신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구 소식

메리놀병원, 1004Day 개최



메리놀병원(병원장 : 황선출 세례자요한) 간호부는 지난 10월 4일(금) 병원 로비에서 '1004Day'를 맞아 내외객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지방, 근육량, 체수분 등 인바디 체크와 상담, 손 위생 체험기를 통한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실시했다.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봉래 10월 6일(일) 영도구청 강당
주임 : 황지원 신부, 회장 : 흥병기 다미아노



연지 10월 6일(일) 갈매곶성지
주임 : 박상운 신부, 회장 : 이성길 프란치스코



인보성당, 순교자성월 맞이 전신자 성지순례

9월 29일(일) 명례성지 / 주임 : 윤준원 신부, 회장 : 박태호 도미니코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제27회 정기전

10월 3일(목)~9일(수)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주제 : 희망 / 지도 : 김현일 신부, 부회장 : 하영숙 모니카



화봉 10월 6일(일) 본당 / 주임 : 이재석 신부, 회장 : 임흥선 요셉



초장 10월 11일(금)~13일(일) 본당
주임 : 이창신 신부, 회장 : 김창욱 빈첸시오

